

한경 BUSINESS



김제임스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인터뷰
“스마트폰, 새로운 게임 시작된다”

대권 행보 초읽기 들어간 박근혜
배우 심혜진 부동산 사업 나섰다
바이오산업 초호황기 맞나

사무실의 혁명 스마트워크 밀려온다

은밀히 거래되는 ‘청부 해킹’ 세계

‘길을 잃고 헤매는’ 세계경제 구원할 히든카드는
세계의 싱크탱크 집결지로 떠오른 중국을 가다
부동산 시장 새로운 트렌드 ‘아파트의 진화’

Network

System

Marketing

Business

값 3,500원



베트남 개정 보험업법 발효

외국 보험사 베트남 영업 확대 길 열려

정정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법인장



한국경제신문

베트남 보험업법 개정안이 7월 1일 발효돼 외국 보험사가 베트남에서 지사나 지점 설립 없이도 직접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24일 베트남 국회가 제정한 보험업법 개정법안(이하 개정 보험업법)이 올 7월 1일 발효됐다. 보험업법은 2001년 4월 1일 제정된 이후 10년간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동안 베트남의 보험업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보험회사의 수는 2000년 14개에서 2010년 50개로 늘었고 총 보험료 금액은 2000년 약 3조 동(VND)에서 2010년 약 30조 동(베트남 GDP의 약 2%)으로 증가했다. 보험회사의 투자 금액도 2000년 약 5조 동에서 2010년 약 93조 동으로 늘었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업 시장을 외국에 개방했다. 그러나 기존 보험업법은 이와 같은 보험업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요구와 거래 실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그중 외국 투자자의 시각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많다.

우선 보험의 분류가 늘었다. 종래에는 보험의 종류가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 2종류로만 구분됐다. 그러나 개정 보험업법은 종래 건강보험을 별도의 보험으로 분류하고 생명보험에 은퇴보험을 추가했다.

개정 보험업법은 역외보험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사업과 관련해 보험에 들려면 베트남에서 영업하

고 있는 보험회사와의 보험 계약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WTO 양허안에서 외국 투자 법인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역외보험의 제공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단, 생명보험 중 건강보험 제외). 개정 보험업법은 이런 WTO 양허안의 내용을 반영해 외국 투자 법인과 외국인이 역외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외국 보험회사 또는 보험 중개 회사가 역외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외국 투자 법인과 외국인으로 대상 범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 보험회사들은 베트남에 자회사나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베트남 보험업 시장 급성장

외국 보험회사 재보험의 제한도 철폐됐다. 기존에는 베트남 보험회사가 외국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들 때 대상 보험 책임의 일부를 베트남 재보험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만 한해 허용됐다. 즉 외국 재보험사와 베트남 재보험사를 같이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보험업법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해 외국 재보험회사의 재보험 영업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 유보금 제도가 신설된 것도 눈에 띈다. 종래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유보금으로 세후 이익의 5% 이상을 적립할 의무만 규정돼 있었다. 개정 보험업법은 여기에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부도 등에 대비하고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유보금 적립 의무를 신설했다. 이는 난립한 보험회사들 중 일부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우려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또 개정 보험업법은 정부 자금과 자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또는 공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입찰 경쟁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할 의무를 신설했다. 다수의 공기업들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경쟁은 외국계 보험회사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